

순천 창작예술촌 활기...원도심 살아난다

배병우 사진작가·김혜순 한복명인 스튜디오 오픈

스타 예술인 잇따라 입주...전남 대표 예술촌 도약

순천시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돕고, 시민의 문화 예술 접촉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창작 예술촌'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순천 원도심인 영동 일원에 들어선 창작 예술촌은 스타급 예술인들이 입주에 이어 스튜디오까지 오픈하면서 순천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예술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창작 예술촌에 1호와 2호로 입성한 배병우 사진작가와 김혜순 '한복명인'의 스튜디오 열

림식 행사가 열렸다. 열림식을 축하하기 위해 배우 강부자, 채시라, 오정혜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배병우 창작스튜디오는 부지 142㎡ 건축 168㎡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순천을 주제로 한 화보집 제작 발간과 함께 예술인 교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통 프로그램, 사진 페스티벌 개최 등 사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작 예술촌 입성 제2호인 김혜순 한복명인은 1930년대 적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부지 290㎡, 건축 62.81㎡ 규모의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었으며, 영화 속 한복과 규방 공예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전통 한복 디자인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중인 조강훈 창작 스튜디오도 부지 57㎡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지역간 교류 전시, 지역화가와 협업 전시 및 교류행사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순천시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창작예술촌'을 조성하고, 예술인 영입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순천시의 다양한 지원 등 노력 덕분에 '창작예술촌'에는 순천 출신 유명 예술인의 입성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예술인촌을 조성했지만, 순천 사례처럼 스타급 예술인이 연이어 동지를 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창작예술촌을 예술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순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유명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 개관을 통해 순천시가 생태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순천만을 찾는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순천의 새로운 문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지난 10일 영동 일원에 조성된 창작예술촌에서 배병우 사진 작가와 김혜순 한복명인의 스튜디오 열림식 행사를 열었다. <순천시 제공>

팔마체육관 사거리 연향고가도로 내년 철거

순천시는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단기간 도로개설에 따른 팔마교차로 개선사업에 지장이 되는 연향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향고가교는 지난 1994년 여수 방면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다. 하지만 이후 국도 17호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단절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내년 3월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철거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 지역을 피해 가급적 우회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착공한 팔마사거리~신대간 개설도로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며, 공사 완료시 남송동로에서 신대단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교통편의 증대 및 신도심~원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 쇠똥구리 통해 본 인간의 삶

쇠똥구리를 알고 싶다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가면 된다.

배재성 작가와 이창희 작가는 '쇠똥구리의 일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쇠똥구리가 배설물을 동글게 만들어 땅속으로 가져가 그 안에 알을 낳고 성충이 그 배설물을 먹고 자라 다시 쇠똥구리가 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거대한 미술관으로 바뀐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오는 18일까지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회 1000여명 참석 화합 다져 유공자 31명 표창도



순천시는 "최근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광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침체한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공자 3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가졌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앞으로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면 지역 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7월 개소 예정인 순천시 육아종합지원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2968㎡ 규모로 연향 2지구(연향동 1591-1, 2)에 건립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교사 초빙 수업 등 성과...강남여고 명문 도약

수능 전남 차석 배출도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교장 정형복)가 전남을 대표하는 명문여고로 떠오르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순천강남여고에 따르면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전국수능 모의고사에서 전남 일반계고 중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남 차석(3학년 박유민)을 배출했다.

강남여고의 실력향상 배경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여고는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을 줄이고, 수준별 맞춤 특별수업을 강화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강남여고는 특히 우수학생을 위한 심화 및 논술수업과 중간 등급, 하위 등급 학생을 위한 수업 등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특별 수업을 진행해 전체 학생의 성적을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정규수업의 중요성을 기본 원칙으로 교실 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연수를 연간 9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사를 초빙해 교과별 컨설팅 장학을 하는 등 교사의 수준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행복등교일로 지정해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자유복장으로 등교하도록 하고, 월 1회 행복 하교일(4째 주 수요일)을 지정해 자율학습에 지친 학생의 이른 귀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민 10명 중 9명 새 청사 건립 찬성

시민·공무원 3512명 설문 86%가 2022년 준공 원해

순천시민 10명 중 9명은 순천 새청사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청사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순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18일간 시민 2461명과 공무원 1051명 등 3512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과 설문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는 총 7개 문항으로 청사 건립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질문에 전체 3512명의 응답자 중 찬성이라고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90.5%인 3179명이었다. 반대가 9.0%인 315명, 무응답은 0.5%인 18명으로 나타났다. 청사 건립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는 앞으로 5년 이내인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5.5%를 차지했다.

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7개 건물로 쪼개져 찾아가기 어렵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과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안전 구조진단 결과 C~D등급 판정을 받아 위험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청사 신속시 건립 방식은 현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신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48.2%, 현 청사를 그대로 두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이 46.3%로 나왔다.

청사건립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하고 부족분은 시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1.0%, 연도별로 분산해 시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1.4%로 나타났다. 2017년 예산부터 5년간 매년 100억원 적립기금 조성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 시의회 보고와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시 설명한 이후, 이번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청사건립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